



지을스님 등 내원사 선방 수좌들과 분도수녀회 소속 수녀들은 경부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동반대를 위해 14~18일 경부고속철 구간을 도보 순례했다. 사진은 역새로 뒤덮인 천성산 화엄벌을 지나는 순례단. 사진=천미희 기자

# “자연보존은 우리모두의 사명”

## 비구니스님들과 수녀들, 금정·천성산 구간 도보순례

### 경부고속철관통반대 목소리 결집

#### 부산시청앞서 18일 회향

내원사를 출발, 가파른 천성산 산길을 오르자 2시간여, 역새로 덮인 화엄벌이 펼쳐지자 “와아” 하는 외마디 탄성이 터져 나왔다.

17일 경부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동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지을스님 등 수좌스님들과 함께 화엄벌에 오른 분도수녀회 8명의 수녀들은 역새로 뒤덮인 능선을 따라 걸으며 천성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이들의 감탄은 밀밭눈, 법수(法水)계곡으로 이어진 0.5km 산행 내내 그칠 줄을 몰랐다. 경부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동반대를 위해 경부고속철 구간을 따라 걸어온지 4일째, 14일 범어사에서 발대

식을 가진 이후 이를 동안 금정산을 따라 걸었고, 16일에는 임기리 공사 현장 방문, 울산시청앞에서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가진 후 내원사에 도착했다.

17일 아침, 내원사를 출발하기 전 주지 혜동스님에게 이해인 수녀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로 인사를 대신했던 수녀들은 원호대사가 1천명의 대중을 모아놓고 화엄경을 설했다는 화엄벌에서도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찬송가를 불렀다. 에녹스 유기서원 담당 수녀, 데오프로사, 베라, 돌로레스 수녀 등에 의해 화엄벌에 고요히 울려 퍼진 노래는 원호스님이 89수에 흠여진 대중들을 향해 울려퍼지는 금부(金鼓)의 장중한 소리가 되어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려는

고속철도공단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꾸짖고 있었다.

천성산을 수백번 오르내린 지을스님의 일말한 설명과 함께 8시간 동안 이어진 산행에서 수녀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오늘 이 길을 걸으면서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산에서 왔다는 등산객은 스님과 수녀들이 함께 한 산행에 호기심을 보이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헤치면 안된다”며 스님과 수녀들을 향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수녀, 내원사 선방스님 등이 함께 한걸음 한걸음은 경부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동 반대에 종교계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 값진 의미를 가지며 18일 회향했다.

천미희 기자 micheon@buddhania.com

# 봉은사에 대형 시민선방

## 12월 개관 문화센터 8년만에 완공

강남 봉은사 '봉은문화센터'가 8년의 공사 끝에 준공식을 갖는다.

봉은사와 주대우건설은 11월 7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이명박 서울시장,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봉은문화센터 준공법회를 갖는다.

12월경 개관예정인 봉은문화센터는 총공사비 306억9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5,666평 규모(지하4층 지상3층)로 건립됐다. 지하1층은 전시실, 지하 2~4층은 주차장, 1층은 회의실 및 강당, 2층은 공연장 및 문화교실, 3층은 회의실 및 선방으로 사용된다.

특히 봉은사 경내와 직접 연결되는 3층 선방은 기존의 봉은선방이 이전 때 새벽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불자 및 시민 수행공간으로 개방된다. 선방에서는 주1회 입문자 대상 기초참선교육 및 월1회 외국인대상 영어참선강좌, 월1회 선원장 법문 및 상담 등 열린 수행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될 계획이다.



11월 7일 준공식을 갖는 봉은문화센터. 전시실, 시민선방, 공연장 등을 갖는다.

또 불자교육을 위한 오계학교와 기초문화예절학교, 시민문화강좌 등이 다양하게 개설된다.

주지 원호스님은 “봉은사가 원래 선도량인 만큼 문화센터 개관과 함께 시민선방을 열어 지역포교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사찰주변인대를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람토지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봉은문화센터 건립은 1995년 8월 주대우건설이 착공했다. 문화센터는 봉은사가 직접 사용하는 3층 150평 선원방과 200평 심의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대우건설이 10년간 직접 운영한 뒤 봉은사로 기부채납된다.

김원우 기자 www@buddhania.com

# “고령화사회 진입대비 수발보험 운영 필요”

## 김근홍 교수 주장

한국사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 등 만성적 노인 질환 치료를 위한 ‘수발보험’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근홍(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4일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이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2020년 한국인 평균 수명이 80.8세를 넘을 전망이기 때문에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수발보험 등 장기요양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발보험은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는 제도로, 의료보험 등 공공급여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 등 만성적 노인질환 치료비용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

또한 김 교수는 “가정집에 거주하는 노인 수발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사업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노인 요양 서비스를 담당할 보건의료 인력과 사회복지사, 전문간병인력, 사례관리자 등 복지인력의 안정적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강유신 기자

# 대구 경찰포교 활성화 추진

## 대구경승지단 “태고·천태종 스님 경승추천”

대구경승지단(총재 지성, 동화사 주지)은 16일 경승간담회를 갖고 친채원 대구지역 경찰포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화사 포교국장 진오스님은 “천태종 태고종 스님들도 경승으로 추천,

대구경승단 조직을 새롭게 정비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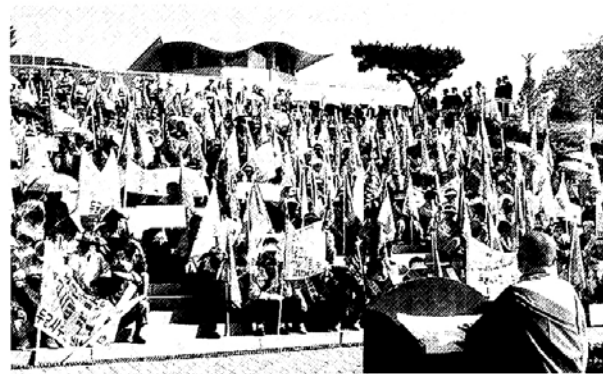
이에 대해 망월사 주지 동진스님은 “앞으로는 대구경찰청의 경승실은 동화사, 사원원, 진각종 등에서 각 1인씩 추천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원구 기자

지정심인당 상원장사는 “각 경찰서에 각각종 정사를 1인 이상씩 파견하는 등 경승업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구경승지단 총재 지성스님은 “경찰포교를 위해 동화사에서 다양한 목적사업 진행을 위한 기금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포교기금이 확충되는 대로 경승단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여러 경승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구 기자



무공사 수호대책위원회는 16일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무공사 수호 부산불교도대회를 열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 무공사 수호 부산불교도 대회

## “부산~울산 고속도 중지, 수행환경 보호를”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로 심각한 수행환경 파괴와 사찰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부산 기장 무공사(주지 대환)가 16일 기장군청 앞에서 무공사 수호 부산불교도대회를 개최했다.(본지 300호 4면 기사 참조)

이날 법회에서 무공사 주지 대한스님은 “40여년 동안 기장군 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어온 무공사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결집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역환경 파괴와 수행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부산시와 기장군청이 나서줄 것과 자연을 훼손하고 불교의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도로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통도사 총무과장 용운스님은 “도로공사측은 공사 중지 및 이전 비용 보상 등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철마선원 난입자 징역3년

북한산 철마선원에 난입해 농성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법수호회측 전직 승려들과 경비용역회사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2단독 박인식 판사는 11일 정법수호회 회장인 전직 승려 김모(60)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피고인과 함께 농성장 난입을 주도한 정법수호회 회원 우모(59, 추모(46) 피고인과 경비용역회사 임직원 4명 등 나머지 6명 모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동우 기자

# 교통안전 표어·수기

동화사, 입상자 발표

동화사는 10일 교통안전 표어 및 수기 입상자를 발표했다.

최고상인 건설교통부장관상에서 최규하포항중학교고등학교 2년(군과) 장다정(대구북로초등학교 4년(양을) 비록 총 82명이 조계종 총무원장상, 대구 교육감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동화사 개산기념일인 27일 오후 2시 30분 동화사 불서루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원구 기자

# 남북청년·여성 통일대회

불교계서 모두 14명 참가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와 남북여성통일대회가 각각 13~14일, 16~17일 금강산에서 열렸다.

불교계에서는 대한불교청년회 김규범 회장을 비롯한 9명, 대학생불교연합 박문수 회장 등 4명, 한국여성불교연합 김모주 회장 등 모두 14명이 참가했다.

남과 북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에서 대한불교청년회 김규범 회

장은 개막선설을 통해 “6.15 공동선언은 그 어떤 정치 협상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이정표이며 통일강령”임을 강조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의 각계 여성 대표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에서 대표단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민족구원회의 절반인 여성이 통일과정에 함께 참여해 통일운동의 주체로 나서서 정상 방지와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여수령 기자

# (봉)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창종법회 (축)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204-82-62512

<h3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宗名 및 宗旨</h3> <p><b>第1條</b> 本宗은大韓佛敎曹溪宗 三和佛敎이라 稱한다. 本宗은 新羅 道義國師가 創建한 迦智山門에서 起源하여 高麗曹熙國師의 重闡을 거쳐 太古普愚國師의 諸宗 包攝으로서 曹溪宗이라 公稱하여 而後 그 宗脈이 緣緣 不絶조계종 삼화불교한 것이다.</p> <p><b>第2條</b> 本宗은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見性成佛 傳法度生四分律을 宗旨로 한다.</p>	<p>◎장로원 : 법종(法宗), 송산(松山), 왕천(王天), 혜경(慧京), 송파(松坡), 법련(法蓮), 도일(道日)</p> <p>◎율원장 : 律山 선원장(방정): 월하(月下) 일허 역경원(학림원장): 법종(法宗) (교육, 포교)</p> <p>총무원장 혜인(慧印) 기획실장 금당 서울총무원 동부-대도(大道) 서부-태합 총회의장 송산(松山) 경기도 동부-성관(成觀) 서부-법정(法眞) 총무부장 헤만(慧玟) 총무국장 법해 강원도 성인(性印) 기획부장 동산(東山) 국장 혜심 충청남도 보광(普光) 재무부장 혜관(慧觀) 국장 대도 충청북도 동산(東山) 혜원 교무부장 법정(法眞) 국장 민광 전라북도 정산(正山) 법성 감찰원장 법련(法蓮) 국장 태합 전라남도 혜월(慧月) 사회부 초산(草山) 국장 진호 경상북도 혜관 포교부장 정산(正山) 국장 인해 경상남도 무원(無圓) 혜명 교육부장 원명(圓明) 묘화, 혜정 제주도 효문, 남산</p>	<p>삼화불교대학 장 혜인 한국종교신문사 장 법성</p> <p>총무처장 헤만 발행인 혜인 교학처장 헤만 편집집 동산, 정영석 학생처장 손영진 주간 김점주 조교 정금옥 교정 조일 김점주 송달 삼주 총무조일 송달자 현우, 최훈, 성훈, 윤기순</p> <p>전국신도회장 서진수</p> <p><b>총회의원</b> 법종(法宗), 송산(松山), 왕천(王天), 혜명(慧命), 송파(松坡), 법련(法蓮), 혜인(慧印), 태합(太合), 무원(無圓), 행록(行錄), 도성(道性), 혜종(慧宗), 성관(成觀), 현성(現性), 봉선(奉先), 법정(法眞), 각원(覺圓), 혜은(慧恩), 혜관(慧觀), 현경(現京), 송광(松光), 월성(月性), 법련(法蓮), 금당(金堂), 남산(南山), 보광(普光), 무광(無光), 혜만(慧玟), 도월(道月), 성인(性仁), 도운(道雲), 인해(仁海), 명광(明光), 혜광(慧光), 혜명(慧命), 혜성(慧性), 삼화(三和), 법인, 성담, 덕산, 혜각, 혜원, 남산, 중산, 승산, 중비, 련성, 인공, 해인, 지산, 가산, 일광, 원각, 일화, 금화, 혜천, 각원, 본각, 동산, 법성</p>
--	---	---

◆本 寺 : 서울특별시 삼각산 해인사 ◆총무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표전화 : 02)511-1080, 511-2026, 2027 팩스 : 02)511-2028